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0월 22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49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남편을
핍박했던 저를 변화시켜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김 숙 -

저는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성도입니다. 남편과 함께 신도시 근교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또 생활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였는지를 간증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결혼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하는 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제 눈에 거슬렸습니다. “생활도 어려운데,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경제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집안일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끈끌하게 교회에 다니는 남편이 더 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허리를 크게 다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타이르듯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은 뭐라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남편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한두 해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다녔으니 이제 말리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남편이 제 잘못으로 다친 것 같아 그때부터 핍박을 멈추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딸 셋을 낳아 기르다 보니 아들도 하나 낳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대문에 꽂혀 있던 복음지를 읽다가 아들 낳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낳게 되었다는 간증문을 읽었습니다. 나도 그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살며 수시로 저를 전도하던 구역장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예배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과 교회생활에 관한 용어가 낯설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어 졸립고 지루하여 몸이 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에 사탕을 물고 억지로 참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머리로는 믿는 것 같은데 무언가 제 생활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에서 믿음이 훌륭한 분들을 보면 몹시 부러웠습니다. 나도 어서 빨리 굳센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저의 믿음이 자라고 예배시간을 기다리는 신령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닌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넷째 아이를 임신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후 운영하던 식료품가게를 정리하고 새롭게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작물이 다 자라 수확할 때가 되면 하우스 앞에 내놓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앞이 도심에서 멀지 않은 등산로 길이라서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부가 애써 농사 지은 야채들을 먹어보고 맛이 있다면서 멀리서도 차를 가지고 와서 사가는 것을 볼 때면 그동안의 수고가 보람되고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저희 비닐하우스 농장이 확장되며 저희가 농사일을 잘 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특별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씨앗을 파종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줄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채소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알차고 튼실한 열매들이 맺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몇 년 전에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몸을 많이 쓰는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종종 아프곤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결혼한 딸이 병원에 입원을 하여 제가 대신 손자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 유난히도 어깨가 아프고 쑤시며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고 약을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아야 하는데 팔이 너무나 아파서 이리저리 팔을 만지면서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 초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줄 모르고 말하기 어려운 큰 죄를 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면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의 벌은 죽어서 지옥에 가서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깨와 팔이 올라가지 않고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 이 땅에서도 벌을 받는군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제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 같기도 하고 휘파람 소리인지 무슨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기한 소리가 잠시 동안 제 귀에 크게 들렸습

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이 밤중에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밤중이고 모두 깊이 잠든 밤이라서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신기한 일이 있고 나서 놀랍게도 극심하던 팔의 통증이 사라지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어깨를 고쳐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팔이 아프지 않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요한계시록 14:2) 한 그 소리와 같은 소리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단번에 합격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놀랍고 감사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믿음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는 채소를 팔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손님이 좀 많네요! 잘 팔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걱정이 안 되고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금 먼 곳에서 손님이 와서 맛있다면 또 사가네요. 주님께서 친히 길러 주시고 맛있는 채소를 수확하게 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감사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들도 결혼하여 모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으며, 아들도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공직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결혼 전처럼 변함없이 교회중심, 예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복음전도의 사명을 받은 성도로서 손님들에게 교회에 다니느냐고 묻고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 모두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1권 (제3단원 :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제19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 본문 : 마태복음 27:32-54
- 요절 :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요 19:30)
- 찬송 : 144장(새찬송가 144장), 211장(새찬송가 269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엡 2:16)을 바로 깨달은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는 말씀은 이를 증거해 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어렵거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요,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고 하셨는데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것입니다.

이 공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자세히 살펴봄으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배우겠습니다.

1. 예수님의 수난 예고

예수님의 생애는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비천한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헤롯 왕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가셨으며 어린시절을 빈촌인 나사렛에서 지내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목수일을 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몸소 가난과 노동을 체험하셨으며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혀 보사 이해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연히 당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이에 대하여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마 16:21).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후 갈릴리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 17:22-23).

세 번째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다시금 제자들에게 심각하고 상세하게 일러 주셨습니다(마 20:18-19).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혹독한 고난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코자 함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

예수님께서 고난을 담당하신 결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2.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예수님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을 지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형’은 로마인들이 반역한 노예들이나 외국인 강도범들에게 가했던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신 21:23)고 하신 바대로 그 주검이 나무에 달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죄한 하나님 아들이께서 저주받은 흉악범들이 받는 형을 받아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별거벗기운 채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고통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인간의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좌 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 사이에 못박히심으로 강도들과 같이 취급되었으며,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도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일진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희롱하였습니다(마 27:38-43).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고통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다윗이 오래전에 매우 사실감 있게 묘사하였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가 당하는 그 처절한 고통을 외면하시므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증오와 심판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3.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다 이루었다”(요 19:30)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다 완수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승리하셨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안겨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히 10:20).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삶의 저주가 도말되었습니다(사 53:5,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온갖 질병과 가난과 미움과 불화가 청산되고 그 대신 건강과 부요와 화목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인산 : 인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민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